



신년사

2006. 1. 1

한국전자파연구원 김 경 석 원장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불과 5년여전에 본격적으로 가동한 한국전자파연구원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내부 시스템 정비, 경영혁신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한해도 전 임직원이 관련업계의 발전을 지향한 서비스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의 경영환경이 우리 연구원의 기술경쟁력과 유연한 시대적 감각 등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저희 연구원은 올해 2006년을 질적·양적으로 더 큰 변화를 추구하는 한해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라는 용어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21세기에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고, 다양한 변화 관리 방법과 혁신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에 발맞춰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변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경영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임직원의 마인드와 업무 스타일, 행동 양식 등이 함께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IMF의 어려움 속에서 태동한 저희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전자파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하오니 우리 업계와 관련기관에 재직하시는 여러분들의 큰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새해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지난해 보다는 개선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는 생사를 가름하기 어려운 위기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때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땀과 지혜는 빛나는 미래의 자양분이라는 말을 되새겨봄과 함께
우리 업계의 무궁할 발전을 염원하면서 새해 인사 말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